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14 May 2007 (morning)
Lundi 14 mai 2007 (matin)
Lunes 14 de mayo de 2007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원미동 시인

남들은 나를 일곱 살짜리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저 그만한 계집아이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틀림없지만, 나는 결코 그저 그만한 어린 아이는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건방지다면 하다못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이나 동네 사람들의 속마음까지도 두루 알아맞힐 수 있는 눈치만큼은 환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을 말하자면 내 나이는 여덟 살이거나 아홉 살, 둘 중의 하나이다.

10 낳아놓으니까 어쩌나 부실한지 살아날 것 같지 않아 차일피일 출생 신고를 미루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 하는데 그나마 일곱 살짜리로 호적에 올려놓은 것만도 다행인 셈이었다.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엄마 마음쯤은 나도 이미 알고 있는 터였다. 아버지는 좀 덜하지만 엄마는 나만 보면 늘상 으르렁거렸다. 꿈도 꾸지 않았던 자식이었지만 행여 해서 낳아봤더니 원수 같은 또

15 그것은 뭐 내가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 사정이 워낙 그러했다. 내가 태어나던 해에 벌써 스물이 넘어 처녀티가 짝 뻗 큰언니에서 중학교 졸업반이던 막내언니까지 딸이 무려 넷이었다. 마흔셋에 임신인지도 모르고 너댓 달 배를 키우다가 엄마는 여기저기 용하다는 점쟁이들한테 다녀보고는 마침내 낳을 결심을 했었다는 것이다. 모든 점쟁이들이 ‘ 만장일치’ 로

20 아들이라고 주장해서였다. 그런 판에 또 조개달고 나오기가 무렵해서였는지 냉큼 썩 빠져나오지 못하고 버그적거리는 통에 산모를 반죽음시켜놓았다니 나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형편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덟 살이다, 아홉 살이다,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는 엄마도 과히

25 내가 얼마나 구박당이에 미운 오리새끼인가를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따위 너절한 게 아니라 원미동 시인(詩人)에 관한 것이니까. 내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시가 뭇인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얼추 짐작하기로 그것은 달 밝은 밤이나 파도가 출렁이는 바닷가에서 눈을 착 내려감고 멋진 말을 몇 마디 내뱉는 것이 아닐까 여기지만 원미동 시인이 하는 것을 보면 매양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

30 동네에는 원미동 시인말고도 원미동 카수니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이 있다. 행복사진관 엄씨 아저씨가 원미동 카수인테 지난번 전국 노래자랑 부천 대회에서 예선에도 못 들고 떨어졌다니 대단한 솜씨는 못 될 것이었다. 소라 엄마가 원미동 멋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잘

35 안다. 그 보라색 매니큐어와 노랑머리는 소라 엄마뿐이니까. 원미동 똑똑이는, 부끄럽지만 우리

엄마이다. 부끄럽다는 것은 남의 일에 간섭이 심하고 걸핏하면 싸움질이나 해대는 똑똑이는
30 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양귀자, '한국문학' 1986)

- 본문의 관찰자는 누구인가?
- 본문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의 특징은 무엇인가?
-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1. (b)

산경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다
 산도 똑같이 아무 말을 안 했다
 말없이 산 옆에 있는 게 싫지 않았다
 산도 내가 있는 걸 싫어하지 않았다

5 하늘은 하루 종일 티 없이 맑았다
 가끔 구름이 떠오고 새 날아왔지만
 잠시 머물다 곧 지나가버렸다
 내게 온 꽃잎과 바람도 잠시 머물다 갔다
 골짜기 물에 호미를 씻는 동안

10 손에 묻은 흙은 저절로 씻겨내려 갔다
 앞산 뒷산에 큰 도움은 못 되었지만
 하늘 아래 허물없이 하루가 갔다.

(도종환 [해인으로 가는 길])

- 시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적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이 시에서 시인의 감정은 어떠한가?
- 이 시의 어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